

# 광양에 '산업 부산물 재자원화 실증센터' 구축

## 전남도, 산업부 공모 선정...2026년까지 264억 투입 국내 철강·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사업 선도

전남도는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산업 공정 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센터' 공모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64억원을 들여 광양 혁신일반산업단지내 산업 공정부산물의 재자원화를 위한 기업 연구 개발부터 제철화, 평가·인증까지 전주기 기술을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한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

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총괄 주관한다.

국내 최고 재자원화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전남테크노파크, 한국공학대학교 등이 참여해 국내 재자원화 관련 산·학·연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번 사업과 연계해 향후 광양에 '탄소중립대응센터' 조지를 신설 운영하고, 광양만권은 물론 국내 철강·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사업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공정부산물 재자원화는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환경오염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를 활성화하면서 국내 순환자원 확보로 미래 전략자원 공급을 안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비활성 촉매와 같은 산업 공정부산물은 백금, 팔라듐, 니켈 등 유가금속을 포함하는 산업적 유용자원인데도 불구하고 재자원화 기술 부족과 취약한 국내 인프라로 인해 대부분 매립되거나 해외로 수출됐다.

정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연계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제조공정의 원료 순환성을 강화하고 있다.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 도시 광산 활성화 등으로 미래 재자원화 체

계를 구축하고 재창출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의 탄소중립 및 재자원화 정책에 맞춰 이 사업을 통해 친환경 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재자원화 산업 육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 광양제철소와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단지의 다양한 산업 공정부산물과 국내 최대 규모 포스코케미칼 광양공장의 이차전지 관련 공정부산물을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재사용·재제조 산업, 물질 재활용 산업 등 다양한 재자원화 산업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정부산물 자원순환 클러스터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박종배 기자

# 광주, 지선 26개 사전투표소 인권영향평가

## 접근성·경사로·승강기 설치 등 이동약자 참정권 행사점검

광주시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 26개소를 대상으로 26일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하는 등 생활 속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시민인권실천단 '광주인꽃지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해 평가항목을 마련했다.

광주인꽃지기, 장애인단체 회원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관내 97개 사전투표소 중 26개소를 최종 선정하고, 현장에서 인권침해

요소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투표소 접근성 ▲투표소 출입구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 내부로 영역을 구분해 투표소 설치 위치와 출입구 경사로, 건물내 이동통로의 너비, 승강기 및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평가단과 함께 점검 결과(체크리스트)를 분석해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인권환경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평가"라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 5월 단체 '예우 범위 확대' 5·18유공자법 개정안 환영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얻은 유공자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에 5월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5일 "성일중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개정안은)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아닌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성일중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참가 끝에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예우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사람 중 5·18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고 있다.



광주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례협의회 개최.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 '예술인 권익보호' 광주문화재단, 전문가·법률 자문단 운영

예술인들의 부당한 처우와 불법 행위 등을 자문할 수 있는 '법률자문단'이 광주에서 운영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법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문가 컨설팅'은 창작 공연, 창작 전시, 장영·단체설립, 세무회계의 4개 분야로 나뉘어 상담을 진행한다.

또 법률자문단은 저작권, 계약, 분쟁, 표절 등의 법률 상담과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신청 등에 대해 조언한다.

컨설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개의 채널로 진행된다.

온라인 문의는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듬소통센터 홈페이지에서 답변을 통해 상시상담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매월 1회 홈페이지 신청 접수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법률가와 1대 1 대면으로 직접 상담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문화재단에서는 1대 1 대면 컨설팅을 실시한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난처해 한 부분이 법률적인 측면이었다"며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단을 많이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첫 전수조사

## 전남도, 명예회복·위령사업 기반 마련 연구용역 착수

전남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진실규명을 통한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기반 마련을 위해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가 전남지역에 20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희생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날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1955년 작성된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전국 학살 피해자 12만 8936명 중 전남지역 피해자는 6만 9787명으로 54%나 된다.

1952년 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는 전국 5만 9964

명 중 4만 3511명으로 73%나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2010년 제1기 진실·화해특위와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군정피해 34건 4985명, 적대세력 피해 20건 2093명으로 밝혀져 어느 정도 진실이 규명됐으나 이는 신청사건 위주의 조사여서 전체 희생자 규모를 밝히지 못했다.

이번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상당수 피해자의 진실규명이 미흡하고 전남도 차원의 정확한 피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지게 됐다.

지역별 사건별 전수조사로 전체 희생자 규모와 역사적 사건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 전남도시재생센터, 골목상권·마을브랜드 세미나

## 도·광주전남연구원 주관

전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27일 여수 복합문화공간인 '이하어백'에서 '골목상권과 로컬 기반 동네·마을 브랜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이 주관하고 전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광행구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모종린 연세대 교수의 주제 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모 교수가 '로컬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 상권 양성'을 주제로 지역발전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참여와 혁신, 확산을 통한 로컬 창조 생태계 구축 방안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다.

광행구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도시재생을 연계하고, 로컬 기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립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립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

